
고도성장기 부산 합판산업의 성장과 쇠퇴(1960-1980)

김대래 /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目 次

I. 서론	Ⅲ. 부산의 합판산업
Ⅱ. 한국합판산업의 성장과 쇠퇴	1. 부산에서 합판산업의 성장
1. 수출과 합판산업의 성장	2. 합판도시 부산의 위상
2. 자원민족주의와 합판산업의 위기	3. 위기와 도산
1) 원가구성과 성장구조의 한계	4. 구조조정 이후
2) 위기와 구조조정	Ⅳ. 맺는 말
(1) 원목의 구입난과 가격상승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2) 제품고도화의 실패	
(3) 수출의 급감	

I. 서론

합판은 한국경제성장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상품이다. 한국에서 공산품으로는 처음으로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것이 합판이었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초기경제개발을 견인하였던 것도 합판이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경제개발추진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외화의 부족을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합판은 이후 중화학공업에 자리를 내어주고 1970년대 말부터는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완전한 내수산업으로 전환되었다. 내수로 시작하여 수출로 번성하였다가 다시 완전한 내수산업으로 전환한 특이한 사이클을 보여주는 상품

이 합판이다. 그와 함께 합판은 하나의 산업이 태동에서 쇠퇴까지의 순환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산업이기도 하였다.

합판은 부산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산업화초기 부산은 산업수도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여기에는 합판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전국 합판산업의 메카로 등장한 부산은 한국합판생산의 절반을 생산하는 이른바 합판도시였다. 한국최대의 합판기업이었던 동명목재와 성장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수출합판회사들은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동명목재와 성장기업은 합판을 기반으로 부산에 동명대와 부산외대를 설립하였는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상 단일상품이 두 개의 대학을 남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처럼 부산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합판은 1980년 이후 세계적인 합판경기의 불황속에서 줄줄이 도산을 하였다. 전국의 모든 합판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였지만 유독 부산의 기업들이 특히 도산의 주인공이 되었다. 부산의 기업들이 도산한 후 합판의 중심은 인천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은 부산경제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는데, 합판기업들의 몰락이 그 서막이 되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한국은 물론 부산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합판산업의 성장과 몰락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큰 흐름에서는 전국 합판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관심의 중심은 부산에 둘 것이며, 주된 분석의 대상기간은 합판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시기까지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합판산업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그러한 성장의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자원민족주의와 함께 원목구입이 어려워지면서 합판산업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부산의 합판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전성기 부산의 합판기업들이 접하였던 위상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의 합판기업들의 갑작스런 몰락으로 1위의 합판도시 명성을 인천에 내어주게 된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할 것이다.

II. 합판산업의 성장과 쇠퇴

1. 수출과 합판산업의 성장

한국의 합판생산은 1953년 6.25전쟁 휴전을 계기로 하여 각종 부흥사업들이 활발해 지면서 내수용 합판의 수요증대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한국전쟁 이후 경제의 부흥¹⁾과정에서 건설용 합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합판생산의 유인을 제공하였다. 1950년대 말²⁾ 부터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고도 주한 UN군에 군납을 시작하였다. 군납은 한때 국내 생산량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합판소비의 중요한 원천이었다.³⁾ 그리고 유엔군에 대한 군납은 훗날 대미 수출의 길을 열게 되는 중요한 기

1)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의 복구와 심각한 주택문제는 합판공업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게다가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계획 수행에 따른 건설수요의 증대는 합판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켰다.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 야사』, 미디어우드, 18쪽.

2) 6.25전쟁 후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부흥수요가 있었으며,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건축붐이 있었다. 조흥은행, 1967.9, 「합판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조흥경제』 31, 59쪽.

3) 한국개발연구원, 1978, 『합판공업의 성장』, 7-8쪽. 군납은 1960년에는 그 실적이 10%를 접하여 주한 유엔군은 우리나라의 주요 합판수요자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합판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1959년에 처음으로 대미 합판수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군납은 1957년부터 공식적인 통계가 확인되는데, 생산량의 5% 이상이 유엔군에 납품되었다. 영토는 한국내였지만 이것은 수출로 연결되는 길이었다. 1961년에는 국내합판생산량의 12.1%를 유엔군에 납품하였다.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5쪽.

능을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합판산업은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수입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는데, 그 후 수출을 만나면서 고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합판기업들은 1954년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용도의 다양성과 휴전후의 각종 부흥사업 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56년까지는 자급자족 단계를 면치 못하였으며 해외수출이 시도된 것은 1959년 국내 최초로 성장기업이 44만S/F를 미국에 수출한 때부터이다⁴⁾. 수출은 합판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무엇보다 수출은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합판이 이렇게 미국시장에 파고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 합판의 품질의 우수성과 함께 세계 최대의 합판 수입국인 미국의 주요 수입선이었던 일본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임금과 함께 합판을 먼지가 많이 나는 공해산업으로 인식하여 서서히 합판수출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였던 사정이 있었다. 일본이 합판수출을 줄이자 미국은 한국으로 합판주문을 하였고,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는 합판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⁵⁾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과 더불어 수출을 시작하였던 합판산업의 폭발력을 당시는 그 누구도 미리 알지 못했다. 합판이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된 것은 1964년이 되어서였다.⁶⁾ 그리고 <표 1>에서 보듯이 합판수출의 실적은 항상 계획을 웃돌았으며, 1963년까지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 그러다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1964년부터 계획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전년도의 실적에서

4)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1975.7, 『부산지역 합판, 제재, 가구제조업 경영실태조사 보고』, 11쪽.

5)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야사』, 미디어우드, 18쪽.

6)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1975.7, 『부산지역 합판, 제재, 가구제조업 경영실태조사 보고』, 12쪽.

50% 신장율을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대부분 초과 달성되었다.

<표 1> 연도별 합판수출 계획과 실적(1,000달러)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계획				12,000	18,000	27,000	40,000	55,000
실적	1,474	2,973	6,783	12,556	19,054	30,683	41,450	

자료 :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 1969, 『수출공산품 실태조사 보고』 제8집(합판제품), 5쪽.

합판이 수출에 성공한 것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합판산업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였고 국제적으로는 1970년부터 1981년까지 12년간 연속 합판수출량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다.⁷⁾ 합판수출국도 1971년 미국을 비롯한 14개 국에서 1974년 말 27개 국가 그리고 1977년에는 28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중동의 오일 달러에 의한 건설붐으로 인해 1973년부터 중동으로도 수출이 시작되었다. 1970년 한국의 세계합판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은 18.4%였는데, 1975년에는 23.8%로까지 높아졌다.

<표 2> 한국의 세계 합판수출 실적 및 비중

(단위 : 천 m³, %)

	1970		1975		1978	
합계	4,472	100.0	5,287	100.0	7,097	100.0
한국	822	18.4	1,258	23.8	1,605	22.6
	1979		1980		1980/1970	1980/1975
합계	7,188	100.0	6,908	100.0	154.5	130.7
한국	1,297	18.0	946	13.7	115.1	75.2
선진국	2,716	37.8	2,685	38.9	116.9	117.6
개발도상국	4,472	62.2	4,223	61.1	194.2	140.6

자료 :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45쪽.

7) 고명호, 2013.10.4, 한국합판보드협회,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 『木소리』, 한국목재신문, 366호.

<표 3> 산업별 합판 국내수요 구조

(단위 : 백만원, %)

		1970		197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내출하 계		17,373.3	100.0	130,706.3	100.0	
중간수요		17,366.6	100.0	129,544.0	99.1	
	광업	2.3	0.0	79.7	0.1	
	제조업		1,950.2	11.2	26,902.1	20.6
		합판	436.6	2.5	7,001.7	5.4
		목제품 및 가구	804.0	4.6	9,584.9	7.3
		금속가구	106.9	0.6	1,292.0	1.0
		전기및전자제품	51.7	0.3	1,945.0	1.5
		기타제조품	551.0	3.2	8,259.3	6.3
	건설업		14,435.7	83.1	92,483.9	70.8
		주택건설	6,253.0	36.0	50,572.2	38.7
		비주택건설	5,113.2	29.4	23,181.0	17.7
		건물유지및보수	1,104.2	6.4	8,587.8	6.6
		공공건물	1,108.8	6.4	5,403.0	4.1
기타건물		856.5	4.9	4,739.9	3.6	
최종수요	기타산업	978.5	5.6	9,949.8	7.6	
	소비	26.7	0.2	1,162.3	0.9	
	소비	26.7	0.2	1,162.3	0.9	

자료 :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46쪽.

합판산업의 성장에는 물론 국내산업의 성장도 주요한 견인차였다. 특히 석유파동 시기에는 국내시장이 안정적 수요를 제공해주었다. 합판의 주수요처는 건설업인데 건설업도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아직은 외국산 합판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되지 않을 때인 1983년을 기준으로 합판의 국내수요구조를 보면 전체 국내소비량 중 2/3이상이 건설업에서 소비되었다. 1970년에는 그 비중이 83.1%에 달했는데 1978년에는 70.8%로 떨어졌다. 대신 제조업에서의 소비 비중이 11.2%에서 20.6%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건설업에서의 소비가 압도적이며, 그 다음

으로 제조업에서의 수요비중이 높았다. 목제품 및 가구 그리고 전기전자제품의 케이스 등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에서의 합판수요 비중을 높인 결과이다. 그에 반해 합판 그 자체가 최종소비로 소비되는 비중은 1%를 넘지 않았다. 합판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중간재로 거의 대부분 소비되는 구조였다.

2. 자원민족주의와 합판산업의 위기

1) 원가구성과 성장구조의 한계

합판산업은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원가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원목을 100% 해외에 의존하고 거의 원목 하나의 가공을 통해서만 상품을 만드는 특수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원목의 해외의존도는 절대적이었고 또 원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절대적이었다. <표 4>에서 보듯이 합판생산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은 경우 90%에 육박하였다. 우리나라 합판산업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 후반에도 재료비는 여전히 89%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합판산업의 원가구성에서 재료비의 압도성은 원목가격이 합판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율이나 외화가득률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었다.

노무비는 1978년을 제외하면 10% 이내였다. 장치산업이긴 했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인 합판에서 노무비의 비중이 10% 이내였던 것은 저임금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합판산업은 원목의 원활한 수입과 수출의 호조, 저임금 노동자의 무리없는 공급 그리고 채산성의 악화를 막아주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생존의 조건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위협받으면 합판산업 자체의 존립이 어려운 구조였다.

<표 4> 단판·합판 및 관련나무판 산업의 원가구성비

(단위 : %)

	1977	1978	1979	1980	1981
재료비	87.9	89.3	89.8	82.8	83.6
노무비	8.4	11.4	8.6	8.4	9.7
경비	10.8	12.8	10.2	18.8	15.9
전력수도광열비	2.9	2.6	2.1	2.0	2.6
감가상각비	2.0	2.3	2.2	2.2	2.6
세금외공과		0.1	0.1	0.1	0.1
외주가공비	0.2	1.3	0.2	0.1	0.2
당기총제조비용	107.1	113.4	108.5	103.0	106.6
재고동증감액	0.2	0.7	0.1	-0.1	-0.1
고정자산등타계정 대체액	6.9	12.7	8.4	3.1	6.7
제조원가	100	100	100	100	100

자료: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48쪽.

주: 원자료는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각년도이며 업종번호는 33113임

<표 5>에서 보듯이 합판수출의 원가표를 보면 실제로 합판생산을 통해 기업은 손실을 보는 구조였다. 1968년의 1,000S/F 합판의 수출가격은 41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11,234원이었는데, 이것은 수출부대비용을 고려한 실제 총수출비용보다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금융 및 조세상의 지원 때문이었다. 이 지원규모는 수출원가의 약 15%에 달했다. 결국 1960년대 후반 합판이 수출산업으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 합판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가능했다. 1983년 2월 현재 원목도입 시 기본관세율은 5%였지만 한국합판공업협회, 제재공업협회 및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의 추천을 받는 경우 할당관세율은 1.5%가 적용되었다.8)

8)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52쪽.

<표 5> 합판수출원가표(1,000S/F, DBS 5/32"×4"×8" 기준, 원, 달러)

		원	달러(FOB)
수출원가(A)		11,234.00	41.00
제조원가(B)		10,624.45	259.13
	재료비	9,115.78	
	노무비	818.08	
	경비	690.59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C)		857.72	20.92
총원가(B+C)		11,482.17	280.05
수출부대비용(D)		741.72	18.09
실질수출비용(E)=B+C+D		12,223.89	298.14
지원비용(F)		1,663.89	40.58
	금융	1,282.55	31.28
	조세	381.34	9.30
기업수출비용(G)=E-F		10,560.00	257.56
수출손익			
	실질손익(A-E)	-989.89	-24.14
	기업손익(A-G)	674.00	16.44

자료: 조흥은행, 1968.12,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46, 31쪽.

그리하여 실제의 생산원가가 판매가격을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합판기업의 수익성은 높았다. 총자본이익률은 11.47%로 수출산업에서 5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29.77%로 7위, 매출액순이익률은 8.8%로 6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국합판공업은 타수출산업(24개 품목)중에서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었다.⁹⁾

그런 반면 1960년대 후반 합판수출의 외화가득률은 다른 주요 2차산품의 외화가득률에 비해, 원료인 원목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았다. 2차산품의 총 외화가득률 48% 및 총수출의 외화가득률 70.1%에 비해 훨씬 낮은

9) 조흥은행, 1968.12,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46, 32쪽.

수준이었다. 게다가 매년 합판산업의 외화가득률은 저하되고 있었는데, 이는 원목의 수입가격 상승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었다.¹⁰⁾ 외화가득률이 낮은 데에는 보통합판 중심의 수출에도 원인이 있었다. 1977년 중 보통합판의 생산비율은 80.0%, 수출실적에 대한 비율은 75.2%를 나타내었는데, 보통합판 중심의 생산 및 수출체제로 인해 외화가득률은 15-20%의 수준으로 2차 가공합판의 가득률인 25-40%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¹¹⁾ 부산의 합판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도 거의 동일하였다. 1975년 경 부산에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는 합판은 대부분 1차 가공합판으로 외화가득률은 20%선에 머물고 있었다.¹²⁾

정부의 다양한 지원은 합판업계에 위기가 오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없어져갔다. 1982년 원목수입 자유화가 선포되었다. 그 전에는 원목을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회사들만이 원목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나 원목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¹³⁾

1975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관세환급제도-수출한 물량만큼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1982년부터 없어졌다. 이때부터 원목수입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큰 회사에서 무역업무에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회사를 차렸다.¹⁴⁾ 수출산업으로서 합판이 가졌던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오게 되었다.

10) 조흥은행, 1968.12,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46, 32쪽.

11)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81쪽.

12)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1975.7, 『부산지역 합판, 제재, 가구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82쪽.

13) 김상혁, 『한국합판산업야사』, 2010, 미디어우드, 313쪽.

14) 김상혁, 『한국합판산업야사』, 2010, 미디어우드, 313쪽.

2) 위기와 구조조정

(1) 원목의 구입난과 가격상승

극도로 대외 의존적이고 정부의 지원에 의해 수익성을 확보하였던 합판산업의 취약한 구조는 원료인 원목을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바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였다. 원목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경고는 많이 있어왔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1972년까지 원목의 수입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¹⁵⁾

원목도입을 주요 국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은 이미 1964년부터 원목수출을 정책적으로 억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문에 1965년부터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산 나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⁶⁾ 이 시기 원목도입량의 국별 비중을 보면 1965년에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이 161천입방미터로 총수입량의 31.5%, 말레이시아는 350천입방미터로 68.5%를 각각 점하였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는 1968년에 처음으로 5천입방미터를 수입하였다.

뒤에서 보듯이 1970년대에 들어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자국합판공업육성과 삼림자원 보호 등으로 원목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비교적 수출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로 수입시장을 전환하였다. 1977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원목수입은 전무하게 되었다.¹⁷⁾ 그래도 1974년까지는 필리

15) 1972년까지 원목의 수입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973년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하반기 원유가의 앙등 등에 따라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건축경기의 부진에 따라 가격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 원목의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원목보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어 원목의 적기확보에 곤란을 다소 겪고 있다.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24쪽.

16) 조흥은행, 1967.9, 합판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조흥경제』 31, 61쪽.

17)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26-27쪽.

편으로부터의 원목수입량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975년부터 필리핀은 자국합판산업의 육성개발과 삼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원목수출을 거의 중단하였다. 말레이시아도 원목수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수입이 원활한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¹⁸⁾

이런 흐름 속에서 원목가격의 1차 급등은 1973년 석유파동과 함께 갑작스레 밀려 왔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하반기 원유가의 앙등 등에 따라 1974년 1/4분기에는 원목가격이 1입방미터 당 105 달러라는 최고수준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계의 경기 후퇴와 합판의 수요부족으로 원목의 가격도 1974년 하반기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4/4분기에는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¹⁹⁾ 원목가격의 하락으로 위기는 연장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복에 불과하였다. 자원파동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원목수출국들이 자국의 원목보호와 원목가공산업의 육성에 더욱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자국원목개발에 대한 조건부 투자, 수출 규제 등 일련의 정책들을 강화하였다. 1974년 11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목재에 관한 자료수입, 목재생산 및 판매지침 작성, 적정목재수출 가격의 결정 및 유지, 회원국 간의 경제적 이익확보 등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목재생산자협회(SEALPA)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입한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원목 및 목제품의 가격인상을 꾀하였다.

필리핀은 1976년에 원목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원칙적으로 원목수출을 금하였다. 1980년에는 우리나라의 주된 원목수입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원목 수출 중단을 선언하고 자국

18)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70쪽.

19)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29쪽.

의 자원으로 스스로 합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많은 해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자를 투자하는 자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홍보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²⁰⁾

인도네시아는 1981년에 목재수출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목재의 국내공급 대 수출비율을 60:40으로 제한하고 수출분에 대하여 고율의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내수 가격과의 격차를 확대하였다. 1982년부터는 자국에 진출한 외국의 산림개발업체의 목재수출을 목재가공제품수출과 링크시킴으로써 자국의 목재관련 산업 특히 합판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1985년에는 원목수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을 천명하였다.²¹⁾

<표 6> 원목도입가와 합판수출가격 추이(원목: 달러/m³ C&F; 합판 달러/ms FOB)

	1978	1979	1980	1981	1982상반기
원목도입가	73	132	140	112	116
	100	180.8	191.8	153.4	158.9
합판수출가	80	123	124	123	114
	100	153.8	155.0	153.8	142.5

자료: 강기봉, 1982.10, 『합판수출부진과 그 처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15호, 31쪽.

이처럼 원목수출국들이 수출을 금지 내지 제한하면서 1970년대 후반 국제원목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6>에는 원목과 합판의 평균 수출가격 동향이 나와 있다. 1978년 73달러였던 원목가격은 1980년에 140달러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원목가격의 상승으로 합판수출가도 올랐지만 합판가격은 원목가격의

20)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야사』, 미디어우드, 391쪽.

21)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50쪽.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1978년 80달러였던 합판수출가는 1980년 124달러로 올랐지만 원목가격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평균가가 아닌 일정 시점의 원목가격의 변동이 더욱 심하였다. 1979년 7월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라왕 원목은 입방당 170달러까지 치솟았다.²²⁾

(2) 제품고도화의 실패

원목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목재자원 보유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활로는 합판품질의 고도화를 통한 가공합판의 수출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품질고도화에 실패하였다. 합판수출에서 보통합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공합판수출은 매우 적었다. 가공기술수준이 낮아 구미 제국은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가공합판과도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낮았다.²³⁾ 그래서 한국은 보통합판을 대량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합판은 수입을 하였다. 선박제조 등에 사용되는 각종 고급 가공 합판은 수출용원자재로 수입되어야 했다.²⁴⁾

<표 7>은 1972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 합판산업의 전성기의 보통합판과 가공합판의 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중이 높아져야 할 가공합판의 비중이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22.3%에 육박하였던 가공합판의 비중은 1982년에는 5.7%로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같은 해 일본의

22)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야사』, 미디어우드, 287쪽.

23)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42-43쪽.

24)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39쪽.

16.2%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난다.

<표 7> 가공합판의 수출 추이(1,000달러, %)

	보통합판		가공합판		계
1972	120,574	68.4	55,705	31.6	176,279
1973	228,784	78.3	63,359	21.7	292,143
1974	147,021	75.2	48,434	24.8	195,455
1975	159,191	69.2	70,793	30.8	229,984
1976	275,458	80.0	68,932	20.0	344,390
1977	329,304	80.6	79,281	19.4	408,585
1978	328,925	83.4	65,598	16.6	394,523
1979	399,788	86.8	60,800	13.2	460,588
1980	306,865	90.0	34,212	10.0	341,077
1981	317,876	89	37,607	11	

자료: 조민하, 1981.11, 『규모의 적정화·기술개발』,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산업연구』, 94쪽. 1981년분은 강기봉, 1982.10, 『합판수출부진과 그 처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15호, 32쪽.

(3) 수출의 급감

1980년은 미국으로부터의 합판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해이다.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이 일본의 바톤을 이어받았듯이 이제 그 바톤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되었다.²⁵⁾ 1982년이 되면서 미국으로부터 5.5밀리 합판주문은 끊어지고 3밀리 합판만이 내수시장에 팔릴 뿐이었다.²⁶⁾ 1984년이 되면서는 미국의 합판주문은 완전히 끊어졌고, 인도네시아의 얇은 합판(3밀리)을 삼성, 선경 등의 종합상사가 수입해서 싼 가격에 판매하였다.

우리나라 합판수출은 1970년대를 통해 급격히 늘어났다. 1970년에 비해 1976년에는 정확히 2배 증가하였다. 1977년에는 1,716,782m³

25)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야사』, 미디어우드, 142쪽.

26)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야사』, 미디어우드, 162쪽.

를 수출하였는데, 이것이 정점이었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던 수출량은 1980년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1982년부터 결정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9년이 되면 1972년 수출량의 정확히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10만^m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사실상 합판의 수출은 제로로 떨어졌다.

<표 8> 연도별 합판수출량(m³)

연도	수출량	연도	수출량	연도	수출량	연도	수출량
1970	834,950	1980	953,203	1990	154,149	2000	99,164
1971	992,397	1981	1,003,683	1991	159,042	2001	61,253
1972	1,342,204	1982	589,994	1992	161,584	2002	37,231
1973	1,438,734	1983	330,202	1993	96,508	2003	34,778
1974	1,013,849	1984	240,288	1994	101,722	2004	43,373
1975	1,288,595	1985	140,731	1995	100,732	2005	9,094
1976	1,662,550	1986	171,112	1996	100,009	2006	9,546
1977	1,716,782	1987	172,105	1997	54,292	2007	4,042
1978	1,617,926	1988	129,660	1998	141,080	2008	1,204
1979	1,307,561	1989	134,617	1999	135,155	2009	293

자료: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및 보드 통계』 각 년도에서 작성.

합판수출의 감소는 합판생산의 감소를 수반하였다. 국내합판공업의 생산능력은 1979년의 7,500백만S/F를 피크로 그 후 감소하여 1982년에는 6,300만S/F로 떨어졌다. 그런데 생산량은 이미 1978년의 6,881백만S/F를 정점으로 급속히 하락하여 1982년에는 3,290백만S/F로 1978년의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가동률은 1978년의 96.6%에서 1982년에는 52.2%로 하락하였다.²⁷⁾ 원목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출길이 막힘에 따라 합판산업은

27)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36쪽.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합판회사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어려웠고,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에 들어 일부 합판회사의 도산이 시작되었다. 합판산업의 몰락의 신호였다.

Ⅲ. 부산의 합판산업

1. 부산에서 합판산업의 성장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합판산업의 모태는 제재소였다. 1946년 11월 현재 부산에서는 44개의 제재소가 운영되고 있었다.²⁸⁾ 해방직후의 혼란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재소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러한 속에서도 문을 연 제재소들은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합판산업의 전성기인 1974년 말 현재 부산에는 33개의 합판업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대규모 합판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합판수출제조업체는 6개였다. 동명, 성창, 반도, 광명, 태창, 대명목재가 전국적인 규모의 설비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6개의 합판수출제조업체 가운데 해방 전에 설립된 기업은 동명과 성창기업뿐이었다. 나머지는 해방 후에 설립된 기업들이었다. 설립연도를 보면 1945-1961년 사이에 1개 업체, 1967-1971년 사이에 3개가 설립되어 합판이 수출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 이후 설립된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대기업들이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부족하게 된 내수부족을 겨냥한 영세기업들이었다.

28) 김대래, 2006, 『해방직후 부산 경남지역의 공업』, 효민, 83쪽.

부산의 6개의 합판제조 수출업체 중 동명목재를 제외한 5개 업체가 주식회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바닷가에 입지해 있었다. 부산진구 적기만에 접해서 동명목재와 성장기업, 광명목재가 입지하였으며, 서구 다대포만에 접해 대명목재와 반도목재가 있었다. 그리고 수영강유역에 태창목재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모두 원목저장을 위해 해안의 만에 공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표 9> 부산 합판업체의 설립연도별 분포(개, %)

	1945년이전		1945-1967		1967-1972		1972-		계	
	업체	%	업체	%	업체	%	업체	%	업체	%
수출	2	33.3	2	33.3	2	33.3			6	100
내수					7	27.0	19	73.0	26	100
계	2	6.2	2	6.2	9	28.1	19	59.4	32	100

자료: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50쪽.

부산의 합판수출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대체로 양호하였다. 합판업체의 설립이 최고의 호경기를 누렸던 1973-1974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설립되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해외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업체의 대폭적인 시설 개선 및 증설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⁹⁾

2. 합판도시 부산의 위상

합판제조에 사용되는 원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또 생산된 합판 중 70% 이상을 수출하는 합판산업은 산업입지상 수송의 편리와 해상수송비의 절감, 해수저수장의 건설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내수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항구도시인 부산, 인천, 군산에

29)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65쪽.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항구인 부산은 전성기 한국합판 총생산과 총고용에서 절반 이상을 점유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합판도시였다.

그러나 부산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합판의 수위도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회사는 대성목재였는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천에 소재한 대성목재가 월등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1961년 우리나라에서 합판을 수출하였던 기업은 대성목재, 동명목재 그리고 성장기업 3개였다. 이 3기업 가운데 대성목재는 성장기업의 약 2배, 동명목재의 4배가 넘는 수출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1963년까지도 이러한 순서는 유지되었는데 그러한 속에서도 동명과 성장이 대성을 따라잡고 있었다. 1964년에 가서 동명목재는 대성목재에 거의 근접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표 10> 기업별 합판 수출량 및 수출액(1,000S/F, 1,000달러)

	1961		1962		1963		1964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대성목재	30,187	1,073	57,374	2,529	74,761	2,668	114,995	4,054
동명목재	6,903	263	5,701	233	31,441	1,867	113,434	3,934
성장기업	13,430	612	10,647	481	54,097	2,033	73,896	2,756
청구목재					1,202	44	6,467	264
광명목재					3,493	126	22,018	801
한국합판					1,294	45	21,760	741
계	50,520	1,948	73,722	3,243	166,288	6,783	352,570	12,550

자료: 조흥은행, 1968.12,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46, 30쪽.

이후 부산의 합판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합판산업의 전성기인 1970년대 중반 합판기업체의 분포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과 인천 그리고 군산 3곳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이 7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인천에 4개 그리고 군산에 3개가 있었다. 이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업체는 동

명목재였다. 동명목재를 비롯한 부산소재 기업들의 비중은 고용 규모에서 57.6%를 점하고 있었다. 인천이 28%, 군산이 14.5%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전성기 합판은 부산이 중심이었다. 고용 비중에 비례하여 생산과 수출도 다소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비중을 점하였다.

<표 11> 전국 합판수출업체 현황(1974.12.31 기준)

소재지	회사명	설립연월일	주제품	부제품	고용인	비중
부산	동명목재상사	1925.4.1	보통, 가공합판	포르말린	5,256	24.4
	성창기업(주)	1916.5.1	보통, 가공합판	포르말린	2,125	9.8
	태창목재공업(주)	1968.12.26	보통, 가공합판	포르말린	1,782	8.3
	반도목재(주)	1969.8.20	보통, 가공합판		1,088	5.0
	광명목재(주)	1946.10.14	보통, 가공합판	포르말린	1,063	4.9
	대명목재공업(주)	1969.6.4	보통합판		1,073	5.0
	(주)三盛목재상사	1973.4.16	보통합판		35	0.2
계				12,422	57.6	
인천	대성목재공업(주)	1936.6.9	보통, 가공합판	포르말린 메탄올	3,482	16.1
	선창산업(주)	1959.10.17	보통합판		1,474	6.8
	이건산업(주)	1972.12.4	보통합판		903	4.2
	동화합판(주)	1972.3.3	보통합판		182	0.8
계				6,041	28.0	
군산	한국합판(주)	1953.6.6	보통, 가공합판	포르말린	1,732	8.0
	청구목재공업(주)	1946.10.12	보통합판		1,139	5.3
	대교산업(주)	1973.2.26	보통, 가공합판		249	1.2
계				3,120	14.5	
총계				21,583	100.0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은행, 1975.7, 『부산지역 합판, 제재, 가구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0쪽.

<표 12>는 기업별 생산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1970년에서

1977년까지 합판도시 부산의 위상은 확고하였다. 생산은 전국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다. 세계 최대의 합판회사였던 동명목재는 1970년 한국합판의 31.2%를 생산하였다. 이후 비중은 낮아졌지만 1977년에도 동명목재의 비중은 1/5을 넘었다. 1977년 한국합판생산에서 동명목재 1위, 3위 태창목재, 4위 성장기업, 6위 반도목재, 그리고 광명목재와 대명목재가 8, 9위를 점하고 있었다.

<표 12> 기업별 합판생산 실적(백만 S/F, %/1977.12.31 현재)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부산	동명목재	883	31.2	1,005	1,141	1,237	24.6	1,191	1,210	1,424	1,370	22.1
부산	성장기업	436	15.4	472	495	564	11.2	432	475	531	571	9.2
부산	광명목재	147	5.2	209	238	274	5.5	229	285	314	351	5.7
부산	대명목재	69	2.4	169	231	267	5.3	179	243	285	356	5.7
부산	태창목재	110	3.9	222	301	367	7.3	344	575	671	732	11.8
부산	반도목재	0	0.0		20	200	4.0	231	305	357	410	6.6
소계		1,645	58.1	2,077	2,426	2,909	57.9	2,606	3,093	3,582	3,790	61.2
인천	대성목재	561	19.8	766	904	1,035	20.6	671	612	800	860	13.9
인천	이건산업	0	0.0			31	0.6	76	103	156	183	3.0
인천	선창산업	92	3.2	88	199	270	5.4	266	322	365	376	6.1
인천	동화상협	0	0.0			40	0.8	26	39	53	65	1.0
소계		653	23	854	1,103	1,376	27	1,039	1,076	1,374	1,484	23.9
군산	청구목재	138	4.9	115	90	135	2.7	184	242	270	272	4.4
군산	한국합판	245	8.7	379	387	405	8.1	313	369	403	452	7.3
군산	대교산업	0	0.0			144	2.9	105	156	138	200	3.2
소계		383	14	494	477	684	14	602	767	811	924	14.9
	기타	150	5.3	208	194	54	1.1	13			1	0.0
	계	2,831	100.0	3,633	4,201	5,022	100.0	4,261	4,937	5,768	6,197	100.0

자료 :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4쪽.

주 : 1. 4mm기준 2. 1977년 12월 31일 현재기준

1970년 합판생산에서 부산의 기업들이 생산한 양은 전체 생산의 절반이 넘는 58.1%를 기록하였는데, 1970년대를 통하여 부산 기업들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1973년 57.9%로 약간 줄어들었다가 1977년에는 61.1%로 높아졌다. 합판은 명실공히 부산이 중심

이었고, 부산의 상품이었다. 특히 위에서 보았듯이 동명목재는 1970년 한국합판생산의 31.2%를 점하는 비중을 보였다. 1977년 22.1%로 비중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2위인 13.9%의 대성목재와 큰 폭의 격차가 있었다.

유수한 합판기업들의 포진은 부산의 경제성장과 위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표 13>은 부산의 10대 수출상품의 변화를 본 것이다. 1964년에서 1969년까지 합판은 부산의 제1상품이었다. 1970년부터는 의류에 1위의 지위를 넘겨주게 되는데, 의류의 경우 다양한 제품들이 망라된 것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1973년까지는 단일품목으로는 합판이 여전히 제1의 수출품이었다고 보아도 좋다. 1974년 이래 합판의 지위는 3, 4위로 떨어지게 되는데, 1979년까지도 여전히 4위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그러다 1983년에 합판은 부산의 10대 수출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표 13> 부산의 10대 수출 상품의 변화

	1964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	합판	합판	합판	합판	의류	의류	의류	의류	의류
2	수산물	의류	의류	의류	합판	합판	합판	합판	철강제품
3	생돈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철강제품	철강제품	신발류
4	견직물	스웨터	스웨터	합성직물	웨타 및 메리야스	철강	신발류	신발류	합판
5	철관	어망	합성직물	스웨터	철강제품	웨타 및 메리야스	직물류	직물류	조선
6	면직물	견직물	어망	가발	수산물	어망	웨타 및 메리야스	웨타 및 메리야스	직물류
7		가발	가발	어망	합성수지	전자제품	합성수지	수산물	어망
8		합성직물	견직물	모직물	어망	수산물	수산물	조선	웨타 및 메리야스
9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공예품	원사	어망	어망	수산물
10		모직물	모직물	견직물	직물	직물류	원사	전자제품	전자제품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	의류	의류	의류	신발류	신발류	신발류	신발류	신발류	신발류
2	신발류	신발류	신발류	의류	의류	의류	의류	의류	의류
3	합판	합판	합판	철강제품	철강제품	철강제품	철강제품	철강제품	철강제품
4	철강제품	철강제품	철강제품	합판	합판	직물류	직물류	조선	조선
5	직물류	직물류	직물류	직물류	직물류	합판	조선	직물류	직물류
6	조선	수산물	원사	조선	수산물	수산물	합판	원사	원사
7	수산물	원사	수산물	수산물	원사	원사	원사	수산물	수산물
8	어망	조선	조선	원사	화학제품	고무제품	수산물	합판	고무제품
9	원사	어망	어망	어망	고무제품	화학제품	고무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10	합성수지	전자제품	합성수지	전자제품	조선	금속제품	화학제품	고무제품	금속제품

자료: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0, 『부산시사』 제2권, 823-824, 844-845쪽.

합판이 부산의 1위의 수출품으로 있었던 시기 부산경제는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른바 초기산업화를 선도하였던 합판으로 인해 부산은 한국의 산업수도의 역할을 하였다. <표 14>는 수출을 중심으로 부산의 위상을 살펴본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부산이 점하는 비중은 1965년에서 1978년까지 20%를 웃돌았다. 한 도시의 수출액이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표 14> 한국 및 부산의 수출에서 합판의 비중(백만 달러, %)

	부산	전국	부산/전국	합판	합판/부산	합판/전국
1962	3.8	54.8	6.93	2.8	73.68	5.11
1963	10.6	86.8	12.21			
1964	18.1	119.1	15.20	7.5	41.44	6.30
1965	37.5	175.1	21.42			
1966	53	250.3	21.17	30.4	57.36	12.15
1967	75.9	320.3	23.70	24	31.62	7.49
1968	114.2	455.4	25.08	39.2	34.33	8.61
1969	156.7	622.5	25.17	46	29.36	7.39
1970	219.7	835.2	26.31	60.1	27.36	7.20
1971	309	1,068	28.95	74.9	24.23	7.02
1972	474	1,624	29.21	102.8	21.67	6.33

1973	791	3,225	24.52	170.7	21.58	5.29
1974	1,052	4,460	23.59	114.3	10.86	2.56
1975	1,223	5,081	24.07	149.1	12.19	2.93
1976	1,803	7,715	23.37	223.9	12.42	2.90
1977	2,172	10,047	21.62	252.1	11.61	2.51
1978	2,645	12,711	20.81	237	8.96	1.86
1979	2,914	15,056	19.36	258.9	8.88	1.72

자료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2권, 1990, pp.819-823쪽;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1972, p.406쪽.
 주 : 통계의 출처에 따라 비중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수출비중은 합판에 의해 가능했다. 합판수출액이 부산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에는 74.7%에 달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합판이 부산의 거의 유일한 수출품이었다. 의류와 신발이 수출에 가세하면서 합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1973년까지 합판은 부산수출의 20% 이상을 점했다.

수출기업들이 워낙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합판을 이야기 할 때는 거의 대기업들만 다룬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들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가동을 하고 있었다. 1974년 말 현재 부산에는, 조사에 응답한 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25개의 합판업체가 있었다. 동명목재가 전체 부산합판산업 종업원의 42.5%를 고용하고 있어 압도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고, 17.3%의 성장기업, 12.3%의 태창목재 그리고 8.6%의 반도목재가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합판수출제조기업 6개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부산합판산업 전체 종업원수의 95.7%에 이르러 내수기업과의 규모의 격차는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수의 4배가 넘는 내수합판업체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은 바닷가가 아닌 곳에도 많이 입지하였다. 원목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나오는 편판들을 재활용하는 생산의 특성상 입지는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표 15> 부산의 합판업체(개, %/1974년 말)

순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제품명	종업원수		누적계		설립연월일
1	동명목재상사	진구 용당동 123	강석진	합판	5,946	42.6	5,946	42.6	1925-04-01
2	성장기업주	진구 적기동 4-7-2	정태성	합판	2,419	17.3	8,365	59.9	1916-11-20
3	태창목재공업주	동래구 민락동 749-5	정해찬	합판	1,719	12.3	10,084	72.2	1968-12-26
4	반도목재주	서구 다대동 380	정해덕	합판	1,200	8.6	11,284	80.8	1969-08-21
5	대명목재공업주	서구 다대동 120-1	김익성	합판	1,094	7.8	12,378	88.6	1969-10-10
6	광명목재주	동구 범일동 428	박종길	합판	986	7.1	13,364	95.7	1946-10-14
7	남보특수합판주	서구 감천동 808	김봉주	천정판	150	1.1	13,514	96.8	1971-05-01
8	삼우목재상사	진구 부전동 460-2	이중웅	합판	79	0.6	13,593	97.3	1973-07-17
9	대창합판공업사	서구 장림동 317-9	박창수	합판	45	0.3	13,638	97.6	1973-12-09
10	동일합판공업사	진구 쾌법동 798-2	정호연	합판	32	0.2	13,670	97.9	1969-04-25
11	부일합판공업사	진구 구포동 1117	김형렬	합판	30	0.2	13,700	98.1	1969-01-15
12	세창합판공업사	진구 감전동 704-1	김익모	합판	28	0.2	13,728	98.3	1970-05-23
13	신아합판공업사	진구 쾌법동 552-4	이중렬	합판	26	0.2	13,754	98.5	Aug-71
14	베델합판공업사	진구 초읍동 603	김영국	합판	25	0.2	13,779	98.7	Jun-73
15	성남목재사	진구 남천동 58-6	김영수	합판	25	0.2	13,804	98.8	1972-03-10
16	동양합판상사	진구 삼락동 570	구경수	합판	23	0.2	13,827	99.0	1971-04-20
17	영신합판공업사	진구 쾌법동 560-7	민영훈	합판	23	0.2	13,850	99.2	1968-11-08
18	삼성합판공업사	진구 동평동 700	이규열	합판	20	0.1	13,870	99.3	1971-07-05
19	신영합판공업사	진구 초읍동 604	임익두	합판	17	0.1	13,887	99.4	Apr-71
20	한진합판공업사	동래구 장전동 651-21	이양우	합판	17	0.1	13,904	99.5	Jul-74
21	우성합판상사	진구 삼락동 118-1	정호선	합판	16	0.1	13,920	99.7	1973-04-08
22	동창합판공업사	진구 덕포동 422	박수현	합판	15	0.1	13,935	99.8	1973-06-28
23	영성합판공업사	진구 양정동 2-77	신윤성	합판	15	0.1	13,950	99.9	1966-03-01
24	동신합판상사	진구 학장동 574	민리근	합판	12	0.1	13,962	100	1973-08-07
25	천연합판제작소	서구 장림동 338-2	백봉현	천연합판	5	0.0	13,967	100	1974-05-03
계					13,967	100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은행, 1975.7, 『부산지역 합판, 제재, 가구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30쪽.

전성기 부산 합판산업의 성장구조는 전국과 다르지 않았다. 원목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저임금 노동이 그러한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표 16>에서 보듯이 1974년 부산의 합판산업에서 원목구입에 들어가는 직접재료비는 79.3%를 차지했으며 직접 노무비는 겨우 2.9%를 점했다. 저임금과 낮은 복리후생비는 노동력의 확보에 애로를 가져왔다.

<표 16> 부산 합판산업 제조원가 구성비(%)

항목		1973	1974	
당기총제조비		100	100	
직접비		84.8	83.4	
	직접재료비	81.9	79.3	
	외주가공비		1.2	
	직접노무비	2.7	2.9	
	특별경비	0.2	0.1	
간접비		15.2	16.6	
	간접재료비	4.3	5.6	
	간접노무비	2.1	2.1	
	제조경비	8.8	8.8	
			복리후생비	0.1
			감가상각비	3.1
			보험료	0.1
			수선비	1.0
			전기가스비	1.2
			수도광열비	0.8
			기타경비	2.5
			기초재공품재고액	0.5
			기말재공품재고액	1.0
			고정자산등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	1.0
			당기제품제조원가	100.1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은행, 1975.7, 『부산지역 합판, 제재, 가구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12쪽.

1970년대 말에 나온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부산의 합판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능인력의 절대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1977년 말 부산의 합판산업 총종업원 17,624명 가운데 85.9%를 점하는 15,144명이 생산직 종업원이며, 숙련공 및 견습공의 수는 12,44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지역 합판제조수출업체 임금수준은 전국수준에 비해 다소 낮았는데, 낮은 임금수준은 기능공과 기술자 등 우수한 기술계 종업원의 이직을 초래하였다.

합판산업에서 타산업으로의 이직율은 매우 높았다. 숙련공 및 견습공의 증원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 고용량에는 훨씬 미달하였다. 노동환경 및 조건이 타업종에 비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고 이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⁰⁾ 나아가 기능인력의 부족은 기업 간의 스카웃 현상을 매우 빈번하게 발생시켜 임금경쟁을 과열시켜 임금코스트를 높이고 있었다.

또한 합판제조업은 소음 및 환경공해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은 시에서 공단내로 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³¹⁾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돌과구는 기술개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통합판 중심의 대량생산은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총생산량의 80%, 수출실적의 75.2%를 보통합판이 점하였으며 미·일·EC 등지로부터 가공도가 높은 특수합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가공기술의 저위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³²⁾

3. 위기와 도산

이런 상황에서 합판산업이 안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

30)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55쪽.

31)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51쪽.

32) 부산은행 조사부, 1978.9, 『부산지역 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69쪽.

났다. 원목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출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은 곤두박질쳤다. 그에 따라 합판수출기업들은 적자로 떨어졌다. 1970년대 말 불황과 함께 산업의 수익률도 떨어졌는데 특히 1979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1980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표 17> 부산 제조업 업종별 수익성 비교(%)

	매출액중매출원가비중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1979	1980
제조업	84.6	85.1	1.9	-0.9	11.2	-6.4	1.5	-0.7
음식표품	80.9	80.4	4	2.6	22.3	15.9	3.1	2
섬유의복	82.4	83.1	3.2	1.4	15.6	7	2.6	1.2
제재가구	91.4	103.6	-1.5	-33.5	-8.9	-202.7	-1.6	-23.2
종이인쇄	80.1	82.9	2.8	-0.6	19.7	-3.2	2.3	-0.5
석유화학	85.4	85.4	3.8	3.5	19.7	19.6	2.3	1.7
비금속광물	74.3	77.5	4.5	1.5	23	8.5	5.1	1.8
제1차금속	89.4	88.1	2.4	-2.1	13.5	-19.4	1.9	-1.7
금속기계	85.7	83.5	-3.2	-1.9	-30	-14.3	-3.7	-2.1
기타	85.6	81.7	3.7	15.1	16.1	59.3	1.8	6.1
대기업	85.1	85.7	1.5	-1.7	8.7	-12.4	1.2	-1.2
중소기업	82.8	82.8	3.9	2.3	20.4	12.5	2.7	1.6
수출기업	86.6	87.3	2.6	-1.7	14.3	-13.2	1.8	-1
내수기업	82.2	82.2	1.4	-0.2	8.2	-1.5	1.3	-0.2
중화학공업	83.9	83.8	1.5	-0.3	8.6	-2	1.4	-0.3
경공업	85.1	85.9	2.4	-1.4	13.4	-10.7	1.6	-0.9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1981.8, 『부산제조업의 경영지표』, 9쪽.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도 특히 합판산업의 타격이 컸다. 부산의 총자본경영수익률을 보면 제재가구는 1979년의 -1.5%에서 1980년에는 -33.5%로 떨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수익률 저하현상이 뚜렷했고 또 수출기업의 수익률이 유가인상에 따른 각종 원자재가격상승률이 수출가격상승률을 상

회합에 따라 채산성악화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 한 중간에 대형수출합판업체들이 있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대금의 회수부진과 자금사정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부자금 의존심화 등으로 기업의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고정비율 및 부채비율은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은 크게 취약해졌는데, 특히 제재가구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악화되었다. 제재가구는 -16.5%로 자기자본이 잠식되었고,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높아졌다.³³⁾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해 1980년 5월 7일 합판공장의 조업을 일시 중단하였던 동명은 마침내 1980년 6월 27일 영원히 문을 닫았다. 세계 최대의 합판 회사로서 한국수출의 견인차였던 거합동명목재가 침몰한 것이다. 1981년 들어 합판수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수출이 부진하자 내수로 돌아서야만 하는 운명에 부딪친 합판업계는 드디어 1982년 구조조정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³⁴⁾. 1980년에서 1983년까지 8개의 합판수출기업이 정리되었다.

<표 18> 합판회사의 도산 당시 생산능력(백만 S/F)

	생산능력	도산일자		생산능력	도산일자
동명	1,336	1980.5	삼신	80	1981.3
신신	135	1981.12	대명	390	1982.8
고려	160	1980.6	광명	320	1982.1
경동	170	1980.9	태창	650	1983.1
계	3,241		계	3,241	

자료: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36쪽.

33) 부산상공회의소, 1981.8, 『부산제조업의 경영지표』, 18쪽.

34)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야사』, 미디어우드, 103쪽.

구조조정은 정부주도로 진행되었고, 부산에 있는 동명목재를 위시해서 태창목재, 반도목재, 광명목재, 대명목재가 퇴출되었다. 부산의 합판공장 5개가 대거 퇴출되는데 대해 정치적 이유에서 원인을 찾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부산에서 살아남은 회사는 성장기업뿐이었고, 인천에서 대성목재, 선창산업, 이견산업, 한양합판이 살아남았고, 군산에서는 한국합판, 청구목재, 고려목재가 살아남았다.³⁵⁾

부산의 합판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퇴출됨으로써 합판의 수위도시는 인천이 되었다. 한때 세계 최대의 합판도시였던 부산의 합판은 하루아침에 몰락하였다. 구조조정이 각 지역의 생산능력을 골고루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과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부산소재 합판업체들에 집중된 퇴출은 매우 의문이 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³⁶⁾

4. 구조조정 이후

1978년 2,557,606m³로 정점을 찍은 한국의 합판생산은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1984년까지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수출의 감소는 생산보다 더 빨랐다. 합판수출은 1977년이 정점이었는데, 1,716,782m³를 수출하던 것이 이미 1982년에 사실상 대량수출시대를 마감하였다. 1982년 수출비중은 48.2%로 50%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다 1985년에는 14.7%로 줄어들었다. 3년 사이에 완전히 수출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다 2001년에는 8.3%

35) 김상혁, 2010, 『한국합판산업야사』, 미디어우드, 149쪽.

36) 전두환 군부정권에서 진행되었던 합판업체의 구조조정은 이후 진행되는 더 큰 구조조정의 서곡이었다. 합판과 함께 수출 부산을 이끌었던 신발을 기반으로 재벌로 성장하였던 국제그룹 또한 전두환 정권에서 자행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었다.

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겨우 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었던 합판은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수출에서 물러나면서 내수산업으로 변모되었다.

합판생산이 줄어들고 수출이 함께 감소하는 이면에서 외국산 합판의 가파른 수입증가가 수반되었다. 합판의 수입은 1960년대 초에도 소량씩은 있었지만 대량의 합판이 수입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88년부터 갑작스런 합판의 수입증가가 있었는데, 당시의 고도성장에 이은 주택건설 등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IMF위기로 통칭되는 1990년대 말의 경기침체에 잠시 주춤하였던 합판의 수입은 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제 합판산업은 내수를 상대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생산보다 더 많은 합판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산업이 되었다. 한때 세계최대의 합판수출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합판수입국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합판수급의 변화는 기업에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미 1983년 6월말이 되면 <표 19>에서 보듯이 과거에 보았던 큰 기업들은 많이 자취를 감추고 작은 새로운 기업들이 합판업계에 대거 등장하고 있다. 얼마 안 있어 도산대열에 합류하는 반도를 제외하면 부산의 큰 기업으로서는 성장만이 보인다. 기업 간에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가동률도 많이 떨어져 있으며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높은 가동률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1980년 이래 동명목재의 도산과 함께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과정은 합판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고 내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수를 겨냥한 작고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었다.

<표 19> 업체별 합판생산실적 및 가동률(백만S/F, 명, %/1983년 6월말)

	연간생산 능력		연간생산 실적		고용인원		가동률	설립연월일
성창	720	13.9	373	12.1	1,488	13.1	51.8	1916.5.1
반도	483	9.3	398	13.0	1,058	9.3	82.4	1969.8.20
부산	37.7	0.7	37	1.2	184	1.6	98.1	1971.12.7
동일	38.4	0.7	20	0.7	99	0.9	52.1	1969.4.8
삼우	32.2	0.6	33	1.1	150	1.3	102.5	1976.7.1
경림	32	0.6	18	0.6	84	0.7	56.3	1981.6.1
청구	460	8.8	181	5.9	634	5.6	39.3	1946.10.12
한국	645	12.4	368	12.0	1,471	13.0	57.1	1953.6.6
선경	322	6.2	242	7.9	813	7.2	75.2	1978.2.4
대성	960	18.5	445	14.5	1,674	14.8	46.4	1936.6.9
선창	528	10.2	302	9.8	1,118	9.9	57.2	1959.10.17
동화	67	1.3	34	1.1	190	1.7	50.7	1972.3.3
이건	300	5.8	240	7.8	855	7.6	80.0	1972.12.4
한양	119	2.3	105	3.4	488	4.3	88.2	1976.5.7
신흥	300	5.8	216	7.0	456	4.0	72.0	1962.10.4
대호	92.2	1.8	26	0.8	301	2.7	28.2	1978.12.4
인천	19.2	0.4	11	0.4	70	0.6	57.3	1978.4.1
이화	15	0.3	12	0.4	92	0.8	80.0	1980.4.1
강서	9.6	0.2	2	0.1	33	0.3	20.8	1981.2.16
부영	17.6	0.3	8	0.3	59	0.5	45.5	1973.3.15
	5,197.9	100.0	3,071	100.0	11,317	100.0	59.1	

자료: 한일은행, 1983.11, 『한국 합판공업의 당면과제와 대책』, 『한일월보』 897, 18쪽.

또한 살아남거나 새로 진입한 합판기업들은 절실한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구경이 작거나 활엽수가 아닌 침엽수까지 합판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합판뿐만 아니라 보드로 생산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IV. 맺는 말

합판은 한국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었던 상품이다. 주원료인 원목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시장 또한 해외에서 찾았던 지극히 대외의존적인 산업이었다. 또 합판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였던 상품으로서 초기 산업화의 중심산업이기도 하였다. 합판은 한국전쟁후의 복구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중후반에는 유엔군의 군납수요도 합판산업의 성장에 큰 자극을 주었다. 군납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합판은 1961년부터 미국시장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인건비의 상승과 공해우려로 일본이 합판수출에서 철수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합판산업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1970년대에는 세계 5위의 생산국에 세계 1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성장기반은 취약하였다. 원목의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임금이 안정되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은 정부의 각종 지원이었다. 각종 수출지원 정책으로 합판기업들은 흑자를 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외화가득률은 낮았다.

1970년대 말까지 합판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자원민족주의로 인해 원목의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합판산업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우리보다 먼저 합판의 사양화를 겪었던 일본은 한국만큼 극적인 합판산업의 쇠락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보통합판 대신 가공합판 생산 쪽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작지만 포션을 여전히 유지하였다. 국내시

장에서의 많은 공급도 여전히 일본기업들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합판은 갑작스런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외 의존적이고 저임금의존적인 산업의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 한국 합판 산업 몰락의 원인이었다.

기술개발을 통해 합판의 고부가가치를 이루어나갔다면 1979년 이래의 위기가 지나간 후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었을 테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1980년 세계 최대의 합판기업 동명목재가 도산을 하였고 잇달아 기업들이 쓰러졌다. 마침내 정부는 1982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설비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러한 합판산업의 성장과 쇠퇴의 중심에 부산이 있었다. 비록 합판산업의 첫 출발은 부산이 아니었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부산은 한국 최대의 합판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합판도시가 되었다. 합판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부산은 한국산업의 중심도시였다. 한때 한국수출의 29.2%의 수출을 담당하던 도시가 부산이었다. 여기에는 합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부산은 한국 합판생산에서 당시 세계최대의 합판기업이었던 동명목재를 비롯하여 6개의 대규모 수출합판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들 기업은 한국합판생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생산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한국합판의 전성기였던 1970년 동명목재의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합판생산량의 31.2%에 달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른바 합판의 시대였고, 부산의 시대였고 또 동명의 시대였다.

그러나 원목가격의 상승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합판기업들은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의 악화를 겪어야 했다. 그런 와중에서 세계 최대합판기업인 동명목재가 도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합판산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시

설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명목재를 비롯한 큰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동명목재에 이어 태창목재, 반도목재, 광명목재, 대명목재도 퇴출되었다. 6개의 합판수출대기업 가운데 성장기업만이 부산에서 살아남았다.

일반적으로 과잉설비의 정리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보면 부산기업들의 집중 퇴출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동명을 비롯한 부산의 기업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들은 그래서 여전히 반추되고 있다. 합판산업의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합판의 중심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과 새로이 진입한 작은 기업들은 수입산업으로 전락한 시장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존방법을 찾아야 했다. 소구경 활엽수를 도입하거나 침엽수까지 원료로 도입하는 흐름은 그러한 생존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판에 집중되었던 생산품목을 보드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생존을 위한 노력이다.

【참고문헌】

- 강기봉, 1982.10, 「합판수출부진과 그 처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15호, 29-32쪽.
- 고명호, 2013.10.4, 한국합판보드협회,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 木소리, 『한국목재신문』, 366호,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각 년도.
- 김대래, 2003.4, 「동명목재는 갔지만 강석진은 남았다.」, 『보이소』, 버리, 156-161쪽.
- 김대래, 2006, 『해방직후 부산 경남지역의 공업』, 효민, 1-233쪽.
- 김대래, 2013, 『부산의 기업과 경제』, 세화, 1-348쪽.

-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1979.8, 「목재업의 현황과 전망 - 합판업 중심-」, 『투자신탁』, 66-76쪽.
- 동명문화원, 2004, 『동명 강석진 -그 생애와 사상-』, 세종문화사, 1-208쪽.
- 서세욱, 2008.11, 「악덕기업인 누명 28년 만에 벗고 명예 찾은 전 동명 목재상사 고 강석진 회장」(목요학술회, 『시민시대』, 통권 289호), 20-35쪽.
- 백락기, 1981.2, 「급성장하는 인도네시아의 합판공업, 국제경제연구원」, 『지역경제』, 72-78쪽.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0, 『부산시사』 제2권, 1-1603쪽.
- 부산상공회의소, 1982, 『부산상의사』, 1-1596쪽.
- 부산상공회의소, 1989, 『부산경제사』, 1-1016쪽.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1975.7, 『부산지역 합판 제재 가구제조업 경영실태조사 보고』, 1-132쪽.
- 부산상공회의소, 1981.8, 『부산제조업의 경영지표』, 1-319쪽.
- 부산은행조사부, 1978.9, 『부산지역합판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187쪽.
-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 1979, 『수출공산품 실태조사 보고』 제8집 합판제조, 1-207쪽.
- 옥상재, 1983.2, 「합판공업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261, 35-55쪽.
- 임업연구원, 1993.12, 『합판산업구조개선방안』, 1-95쪽.
- 전국경제인연합회, 1981.10, 『아세아지역 전자산업 및 합판산업 비교우위 연구』, 1-75쪽.
- 조민하, 1981.11, 「규모의 적정화기술개발」,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산정연구』, 92-95쪽.
- 조흥은행, 1967.9, 「합판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조흥경제』 31, 59-68쪽.
- 조흥은행, 1968.12,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46, 26-38쪽.
- 조흥은행, 1976.5,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133, 9-14쪽.
- 조흥은행, 1977.5,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145, 13-23쪽.
- 조흥은행, 1978.3,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155, 8-17쪽.

- 조흥은행, 1979.5, 「합판공업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169, 6-13쪽.
- 조흥은행, 1979.9, 「합판업계의 현황과 전망」, 『조흥경제』 173, 7-13쪽.
- 조흥은행, 1980.5, 「합판업계」, 『조흥경제』 181, 3-15쪽.
- 조흥은행, 1981.3, 「합판」, 『조흥경제』 191, 12-18쪽.
- 천덕호, 1994, 『동명강석진전기』, 1-438쪽.
- 최기림, 1994.5, 「합판업종의 현황과 전망」, 대우증권, 『조사월보』 110, 43-53쪽.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ecos.bok.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년도.
- 한국무역협회, 1972, 『한국무역사』, 1-619쪽.
- 한국개발연구원(KDI), 1991, 『한국재정40년사』, 7권, 1-700쪽.
- 한국개발연구원(KDI), 1978, 『합판공업의 성장』, 1-152쪽.
- 한국수출입은행, 1983.1, 「인도네시아의 합판공업 개발현황」, 『주산수은뉴스』 265, 19-29쪽.
- 한국외환은행, 1974.4, 「동아시아 주요수출경쟁상품의 수급분석 : 합판, 섬유류, 시멘트, 의류」, 『해외경제』 81, 51-66쪽.
- 한국외환은행조사부, 1971.2, 『합판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1-39쪽.
- 한국외환은행, 1985.4, 「인도네시아 합판산업의 현황 및 전망」, 『외환은행월보』 213, 60-66쪽.
- 한국외환은행, 1981.11, 「인도네시아의 합판산업현황」, 『외환은행월보』 172, 56-60쪽.
- 한국임업연구원, 1993, 『합판산업 구조개선방안』, 1-95쪽.
- 한국합판공업협회, 1985.2, 『합판통계』, 1-70쪽.
- 한국합판공업협회, 1995.2, 『합판 및 보드통계』, 1-67쪽.
- 한국합판보드협회, 2014.2, 『합판 및 보드 통계』, 1-78쪽.

투 고	심 사	완 료
2014.10.31	2014.12.5	2014.12.12

【국문초록】

합판은 한국에서 6.25전쟁 후의 복구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중·후반에는 유엔군의 군납수요도 합판산업의 성장에 자극을 주었다. 군납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합판은 1961년부터 미국시장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인건비의 상승과 공해우려로 일본이 합판수출에서 철수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합판산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1970년대에는 세계 5위의 합판생산국에 세계 1위의 합판수출국이 되었다.

합판산업의 중심은 부산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부산은 한국 최대의 합판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합판도시가 되었다. 합판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부산은 한국산업의 중심도시였다. 한 때 한국수출의 29.2%의 수출을 담당하던 도시가 부산이었다. 여기에는 합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부산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합판기업이었던 동명목재를 비롯하여 6개의 대규모 수출 합판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들 기업은 한국합판생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생산을 하였다. 그리고 1970년 동명목재의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합판생산량의 31.2%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른바 합판의 시대였고, 부산의 시대였고 또 동명의 시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판산업의 성장기반은 취약하였다. 원목의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저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실제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다. 생산가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은 정부의 각종 지원이었다. 각종 수출지원으로 합판기업들은 흑자를 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외화가득률은 낮았다.

1970년대 말까지 합판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자원민족주의로 인해 원목의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합판산업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합판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는 원목가격과 함께 수출길이 막히면서 합판산업은 위기에 빠져들었다. 마침내 1980년 세계 최대의 합판기업 동명목재가 도산을 하였고 잇달아 기업들이 쓰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합판산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동명목재에 이어 부산에서는 태창목재, 반도목재, 광명목재, 대명목재가 퇴출되었다. 6개의 합판수출대기업 가운데 성창기업만이 부산에서 살아남았다.

일반적으로 과잉설비의 정리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보면 부산기업들의 집중 퇴출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합판산업의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합판산업의 중심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핵심주제어 : 합판산업, 부산, 동명목재, 자원민족주의, 목재

【Abstract】

**The rise and decline of Busan plywood industry
during the rapid growth period (1960–1980)**

Dae-Rae Kim / Sil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Plywood industry grew based on the demand coming from restoration after Korean war. Supplying to UN military in the mid and late 1950 also stimulates the growth. Military purveyance guaranteed the quality of plywood, making export to the United States possible since 1961. In accordance with timely decline of Japanese plywood industry due to rising wage and environmental worries, Korean plywood industry achieved the splendid growth after the mid 1960, ranked fifth place in the world as a producer and first place as a exporter in 1970s.

Busan was the centre of the industry. Busan became the largest and an international city for the plywood industry. During the highlights of the plywood industry, Busan was the centre of Korean industries. Busan was once in charge of 29.2% of total export of Korea, and plywood industry played a big role here. In 1970, Busan had six of large plywood-export companies including Dongmyoung, the largest one in the world, and these companies produced over the half of the total plywood output of Korea. Also, Dongmyoung produced 31.2 percentages of total output of Korea. The late 1960 to the mid 1970 was the period of plywood industry, of Busan, and of Dongmyoung.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industry was weak in that the wage had to be kept low and import of hardwood had to be

sustained. It was difficult to raise actual profits under these conditions since the cost of raw material was too high in production cost. The government's various support eliminated these limitations. Many firms could gain profits and grow due to diverse supports for export, but a foreign-exchange earning rate was low.

The plywood industry enjoyed its heyday until late 1970. However, the industry faced the challenge as it could not import raw materials more due to resource nationalism after the first oil crisis. The plywood industry came to a crisis as the way to export was blocked since price of raw material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plywood. Finally Dongmyoung, the largest company in the world, went bankrupt in 1980 and other companies consequently went bankrupt too. The government carried out structural adjustment in this situation. Followed by Dongmyoung, Taechang, Bando, Kwangmyeong, and Daemyeong in Busan were liquidated. Only Seongchang survived among the largest six Busan companies.

If we say that reducing excessive equipment should be carried out equally across regions, the concentrated liquidation of Busan companies is an aberration. After this structural adjustment, the centre of plywood industry moved from Busan to Incheon.

Key words : Plywood Industry, Busan, Dongmyoung Timber Company, Resource Nationalism, Timber